

특집 경찰수사,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경찰 수사의 公正性は 그 獨立性が 전제 조건

경찰청이 최근 남영동 인권보호센터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현직 경찰관들을 비롯,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손동권 교수(건국대), 박노섭 교

수(경찰대)가 각각 주제 발표를 기졌고, 다수 전문가들을 비롯한 방청객들이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손동권 교수

검찰 송치전까지 독립된 수사권한과 책임 필요,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과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 지위도 보호돼야

손동권 교수는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無所不爲의 검찰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는 물론이고, 수사 간부 주도의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사법경찰관에게 적어도 송치전까지는 독립된 수사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책임수사 구조로서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교수는 『경찰 수사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해 검찰에 송치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수사간부를 양성하여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손 교수는 『공정성은 경찰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의 피해자의 지위도 충실히 보호하는 구조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악의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으로부터 무고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진정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그를 형사 처벌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악의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에 의해 무고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누명을 벗겨 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수사구조가 입법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손 교수는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의 도입, 자체 수사 이익제도 활성화, 내사사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박노섭 교수도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는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공정성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경찰도 급변하는 수사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적인 조직체계와 인사운영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現 수사시스템을 분석하고 『형소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 임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법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사실무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법경찰 수사의 독립성 부여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적인 근거마련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그 외에도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현행 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의 복종의무 규정, 저장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권, 사법경찰관리의 관할지방 검사장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의무 및 사법경찰관의 정보보고 의무, 그리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 요구권」을 들고 있다.

한편 박 교수는 수사기관간의 문제점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관리의 종속,

검사의 자체 수사인력 보유,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역 확장(송치전 수사지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권 피의자 대면심사와 강제 인지) 등을 예시하고 『수사경찰의 독자성은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한 고유영역의 부여와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사법적 통제로 한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부 독립성 확보도 외압을 극복할 수 있는 신분보장, 외압 자체를 억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제한, 그리고 광역 수사대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직구조개혁을 들고 있다.

덧붙여 박 교수는 『관한 집중을 통한 기관의 지휘감독은 더 이상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 분권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검·경관계는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상호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각 기관의 전문영역을 교류함으로써 수사활동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소법상 경찰의 수사주체성 명문화와 검찰과의 상호협력관계를 설정하는 한편 경찰 내적으로도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국 前 치안감, 「수필 6.25 今昔之感」펴내 - ①



김재국 前 치안감이「수필 6.25 今昔之感」이란 책자를 펴냈다. 『8.15 해방 후 서울에 정착하면서 죽을 때까지 人生을 그려 보리라 생각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6.25를 맞이하여 서울을 후퇴할 때에 내 개인의 기록이 공산당 손에 들어가면 혹시 진류하는 가족들 신상에 불리한 결과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김 前 치안감. 그는 『후퇴를 계속하며 새로이 쓰기 시작하여 모아 놓았던 것을 지금 활자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나의 젊은 시절의 이상과 고민과 절규를 담은 한 폭의 그림으로 후세들에게 주고 싶다.」고 밝혔다. 본誌는 紙面관계상 김 前 치안감의 수필집을 全載할 수가 없어 日記 부분만 중간 생략을 병행해 2회에 걸쳐 게재하되 최대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충실히 나타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맑음

어제 저녁은 역사 노트를 정리 하느라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늦잠을 깨었다. 눈을 깨고 보니 어머니와 아내가 예매당에서 돌아오며 합숙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모두 비상소집으로 직장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 같기에 그대로 놀아 버리려고 했다. 천천히 점심을 먹으며 생각하니 마음이 좀 불안한 감이 들었다. 항상 발생하는 38선 충돌 사건이니 또 예사겠지 하는 낙관 속에서도 아내의 말이 38선에서 대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는 말에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구나 생각되어 곧 등침을 하였다.

비로소 남침 사실을 알고도 국군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비관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전황에 낙심천만으로 불안이 증가했다.

6월 28일 월요일 맑음

전황은 서울시로 접근하여 가일층 마음은 초조했다. 아무래도 집에 가서 만일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수원 천도설이 나돌고 집안에 잠깐 다녀와도 좋다는 허락이 있어 집에 들렀다. 가족들은 모두 불안과 공포에 잠겨서 어쩔줄을 모른다. 전황의 대락을 말하고 만일의 경우를 연상하여 서류들과 일기장 등을 태우고 다른 책들은 아까워서 그대로 두었다. 내가 월남하여 직장에 나가면서 천신만고로 한 권씩 모은 책이 약 80여권 되었는데 이것들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며 학구적으로 내 생령처럼 귀중히 여기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머님께서 차려 주시는 조반을 먹으며 가족들에게 만일 이별하여도 당분간이니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태산

같았지만 왜 그런지 자꾸 비애가 솟구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 것들에게 주의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정일(큰아들 중일, 그때 이름, 9세)와 정웅(중언, 6세) 둘을 불러놓고 지금 난이 났으니 어머니와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런즉 두놈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여 다시 정일을 불렀다. 그리고 전란중에 가족을 잃어버리면 너는 큰 사람이니 혼자서라도 살기에 노력하라고 했다. 또 다시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경찰관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거지 아이

이 10월 還京, 또다시 12월 후퇴, 그리하여 대구대에 2개월 근무하다가 재차 서울수복 선발대로 2개월 등참으로 정전하는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행함이 모두 무질서한 가운데 흘러버렸다. 웅장한 새 역사가 태동하는 이 와중에 역사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젊은이로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과거를 회회한다. 새로운 직장인 대전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10여일이 흘렀건만 아직 속수도 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안정을 못 찾고 있다. 모래부터는 또 부산으로 중화가 훈련을 받으러 2주간을 출장하란다. 가족이 부

산에 있으므로 편리한 점은 있으나 나는 기계방면에는 취미가 없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 기본 새 마음으로 이상을 향하여 내가 이끄는 외근 직원

“비로소 남침 사실을 알고도

국군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비관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전황에 낙심천만으로 불안이 증가했다”

들 속에서라도 같이 섞여 살라고... 저 거지 아이들까지 말하고는 눈물이 목메어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런즉 영롱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돌린다. 아 - 그때의 비애를 무엇에 비하랴! 가슴이 메어 읊을 글할 수 없었다.

거지아이들! 평소애 거지 틈에 못 끼웠던 것이 한탄스러웠다. 세상에 귀천이 어디 있으랴! 삶의 존귀한 교훈을 맛보았다. 본대(本隊)로 나오다가 박선규(朴善奎) 경사 집에 들러 지가 대비 한 칼레를 얻어 가지고 그와 함께 등청했다. 그는 만주 출신으로 전란 때에는 신발준비가 요긴하다고 했다.

- 종 략 -

서기 1951년 5월 27일 일요일 맑음

- 대전 鐵警 근무시절 어느덧 세월이 흘렀는지 내 자신이 놀랍다. 6.25사변이후 부산에서 꼭 사변기록을 계속하겠다고 기약하던 것

1952년 설날 새벽

- 대구, 鐵警本隊시절 어느덧 신유년(1951년)도 한 해를 감추고 임진 새해의 자정이 告해왔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하니 감개가 새로움을 글할 수 없다. 수난! 극복! 민족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나 자신이! 내 가족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난의 일년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성해 보면 그 수난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자신을 발견한 것을 본다.

농촌 출신으로 단순하지만 하던 내 어머니와 아내는 이제 도시생활의 생존방법을 좀 배웠기 때문이다. 특히 적수공민으로 일가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의 모진 생활체함을 하여 어느 정도 삶의 신조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다음호에 계속>